

 <b>제주발전연구원</b>	<b>보 도 자 료</b> PRESS RELEASE	제공일자	2010. 09. 07.(화)
		담 당	제주발전연구원 문순덕 책임연구원
	총 2페이지	연락처	726-7407

## 제목 : <추모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 보고서 발간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에서는 2010년 기본연구로 제주여성의 정신적 공간인 ‘김만덕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 제안을 목적으로 <추모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현재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김만덕은 제주도민들이 기아에 허덕이던 1794년(정조 18) ~ 1796년(정조 20)에 전 재산을 내놓아서 구휼했다고 알려졌으며, 2012년은 김만덕이 사망한지 200주년이 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보고서 내용을 보면 김만덕 생애의 역사적 고증과 현양 사업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사료와 구술자료 등을 정리했다.
  - 김만덕 생애의 주요 사항 부분은 고증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신분(免賤 여부), 외모, 기녀 생활, 결혼 여부, 객주 상업의 내용, 財物에 대한 만덕의 생각, 구휼곡의 양, 정조대왕 알현 여부, 한양 체재 기간, 정조대왕의 만덕 전 저술 지시, 만덕에 대한 당대의 평가’ 등을 정리했다.
  - 김만덕 현양 사업 방안으로는 주로 사료(史料), 전기문에 나오는 김만덕의 가계(본적 등), 신분, 행적, 사후의 추앙 정도 등을 21세기에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김만덕의 위상정립과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등을 면담하고 정리했다.

□ 보고서 정책제언에 보면

- 김만덕 사업의 운영 주체, 기념관 등 기념공원 조성, 객주터의 정확한 고증, 김만덕 관련 지적재산권 운영 주체 지정, 김만덕 사업 추진 부서의 단일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덕제」와 「만덕상」 운영의 변화 요구를 담았다. 지금처럼 <탐라문화제> 기간에 지내지 말고 특정 기념일 지정이 필요하다. <사망일 : 1812년 10월 22일(음) ⇒ 11월 25일(양력)으로>
- 향후 김만덕 재조명을 위해 사료 조사 등 연구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김만덕 관련 사료의 한계로 일부만 확인되었는데 앞으로는 상업활동 내역, 당시 제주 포구의 기능, 정조의 국정철학, 당대 제주목사의 인품 등 확인할 내용들이 많다.

□ 자료 문의는 제주발전연구원 자료실(064-726-6217)